



작성자

중학생



책제목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학생 작성 글

▶(가) 요즘처럼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 힘겹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 현대인들의 삶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예민해져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이 책의 슈호프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배려해주는 사람은 꼭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린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추구해 가며 살아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는 제목 그대로 이반데니소비치라는 사람의 하루 생활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하지만 우리들처럼 평범한 하루가 아닌, 강제수용소에서의 하루 생활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도와주며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슈호프가 생활하는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슈호프는 타인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속해있다. 사실, 이렇게 나 하나 살기도 급급하고 힘겨운데 남을 도와주며 산다는 건 매우 존경스러울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수용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취급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을 생각해 준다는 마음은 참으로 위대하다.

▶(다)오전 5시에 일어나서 만원인 식당에서 생선뼈와 썩은 양배추 잎사귀가 뚱뚱 떠 있는 아침식사와 750g이 채 안 되는 딱딱한 빵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해질 때까지 영하 30°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벽돌을 쌓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곡괭이를 휘두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슈호프는 그 일을 매우 열심히 해 나가면서 자신이 이룬 일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며 그 일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마치 자신이 감옥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잊은 채 그 일에 몰두 하며 장인 정신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학생 작성 글

▶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해서 힘들 텐데도 작업장에 와서도 반장을 도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밖은 영하 30°가 넘는 혹독한 추위가 있을 지라도 그의 훈훈한 인심과 따뜻한 배려심이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힘을 준다. 그렇게 슈호프는 하루하루 일상의 작은 일들에 만족해가며 살아간다. 슈호프는 이런 일들을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해 오면서도 매일을 행복하게 보낸다.

▶(라)이렇게 슈호프의 하루를 보고 있으면 감옥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감옥이라는 곳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 극한 상황에서도 남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 내 생각에는 슈호프가 그 긴 10년의 세월을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으로 썼다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슈호프가 감옥이라고 투덜대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불평만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 슈호프는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재수 좋은 날인 오늘처럼 살고 소중히 쓰다보면 남을 위해 더 봉사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절로 생겼을 것이다. 한 끼니를 채우기 부족한 스프 한 그릇을 내가 먹지 않고 다른 동료를 위해 가져다준다는 것,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에는 그리 큰 일 같지 않지만 그들의 생활에서 본다면 그 스프 한 그릇은 그들의 하루 식량으로도 볼 수 있는 큰 의의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슈호프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삶만 바라보고 불평을 해대며 살아갈 때, 남을 위해 배려해 주며 인간답게 살았다.

▶(마)이반데니소비치 슈호프는 누가 봐도 정말 배려심이 깊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극한 상황이나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슈호프처럼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의 바쁜 삶에 불평하고 경쟁에 얽매어 자기 주변의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 “젓바퀴처럼 도는 일상도 때론 감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 그리고 나를 위해 조금 더 배려해 주고 도와주고 한번 더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행복해질거예요.”



첨삭지도

◆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

▶ 000학생의 글은 참으로 맛깔스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개성이 느껴지고 정감이 흐르는 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대상 도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력 때문일 것입니다. 자칫 이 책의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해 핵심 요소를 간추려 논술문으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000 학생의 독서 능력과 차분하고 지성적인 글 전개 솜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단지 글 전체 분량상 책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다 보니 사회 현상으로 폭넓게 연결짓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 창의적 사고력

▶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이야기는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축소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잘 짚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 슈호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었는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찾아내어 원래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논리적이라기 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글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읽는 재미는 주지만 논술문에 썩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독서감상문과 같다는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라) 글에서 '내 생각에는 슈호프가~'라는 표현은 감상문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000 학생은 깊이 있는 독서로 사고 과정을 활발히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책의 내용을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글을 전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창의적인 논술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첨삭지도

◆ 문제 해결력

▶ 글 (가)에서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들의 삶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슈호프의 이야기만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좀더 다양한 삶을 소개한 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 글 (가)의 문제제기와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글 (나)는 슈호프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글 (다)는 글 (나)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세부 문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 (나)와 글 (다)에서 지나치게 장황하게 슈호프의 배려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현대 사회에 비추어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했다면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 돋보이는 글이 될 것입니다.

◆ 문장력 및 표현력

▶ 000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 전체 수준으로 보았을 때 문단 구성력이 뛰어나며 각 문단의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의 연결도 자연스럽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영향으로 맞춤법과 띄어 쓰기를 무시하는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000 학생의 글은 어법이 정확하고 띄어 쓰기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단지 멋지게 표현하려다 보니 어색한 문장이 몇 군데 보이는 것(예 : 글 (가)의 첫 문장 - 요즘처럼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 힘겹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도 바쁜 현대인들의 삶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예민해져 있다. --> '매일매일'과 '하루하루'는 같은 의미이므로 한번만 사용하되 첩어구성을 남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첨삭지도

▶ '현대인들의 삶은'이 주어인데 앞 부분에 꾸며주는 말들이 많아서 어색한 문장이 되었습니다.)과 주어를 생략해서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문장(예 : 글 (가)의 마지막 문장 -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외에는 별로 흠잡을 곳이 없는 깔끔한 글입니다.

총평

▶ 000 학생은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고 남에게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했습니다. 000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초등학교 시절 풍부한 독서 경험기를 거쳤으며 현재에도 정독을 통한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글 쓰기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000 학생은 좋은 바탕을 마련한 셈이 됩니다. 그 동안 익숙했던 독서 감상문 형식의 글을 벗어나 독서논술문을 쓸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라며 독서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독서 논술 교육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